

02

사회 정의와 윤리

성취기준

- 사회 정의의 의미를 알고, 분배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을 설명할 수 있다.
- 소수자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 사형 제도의 윤리적 쟁점을 알고,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1 분배적 정의의 의미와 윤리적 쟁점들

생각해 봄

개인 윤리적 관점과 사회 윤리적 관점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회 윤리와 사회 정의

사회 윤리의 특징 개인 윤리적 관점은 개인의 양심과 합리성 등의 회복으로 사회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계층 간 갈등, 빈부 격차, 인종 차별, 부패와 같은 문제들은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회 윤리적 관점은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사회 구조 혹은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니부어는 도덕적인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일지라도 집단에 속한 개인은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쉬우므로,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의 도덕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사회 집단이 개인보다 비도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연적 충동을 억제할 합리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집단 내 구성원 간의 문제는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과 설득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집단 간의 문제는 윤리적이기보다 정치적이므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는 문제 해결을

*니부어(Niebuhr, R., 1892~1971)
미국의 사회 윤리학자로, 『도덕적 인간
과 비도덕적 사회』를 저술하였다.

위해서 정치적인 강제력에 의한 방법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윤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 윤리적 관점과 사회 윤리적 관점이 모두 필요하다. 개인은 양심과 도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사회 구조와 제도의 비도덕성을 개선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사회 정의의 의미 동양에서 정의는 천리(天理)에 부합하는 ‘올바름’ 혹은 올바른 도리로서 ‘의로움’으로 설명된다. 공자는 눈앞의 이익을 보거든 의리를 먼저 생각하는 견리사의(見利思義)의 자세를 강조하였으며, 맹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판단 기준으로 의로움을 제시하였다. 이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타인의 악행을 미워하며, 더 나아가 부정의한 현실에 저항하는 마음이다.

한편 서양에서 정의는 ‘올바름’ 혹은 ‘공정함’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의에 대하여 소크라테스는 질서가 잘 잡힌 영혼이 추구하는 본성으로 보았고 플라톤은 지혜, 용기, 절제가 완전한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는 최고 덕목으로 이해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가 자기의 것을 취하며 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는 것을 정의라고 보았는데 누군가가 남의 재물을 취하고 법에 따르지 않는 것은 부정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처럼 서양에서 정의는 대체로 사회적 재화의 분배와 관련되어 있다. 롤스(Rawls, J.)에 의하면 정의가 거론될 때 사회적 재화를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구성원들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사회의 법과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재화 분배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구성원들은 불만을 제기하게 되고, 그 사회는 부정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스 친위대 장교였던 아이히만에 의해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서 희생된 유대인이 약 600만 명에 이른다. 그가 재판정에 섰을 때 사람들은 ‘인간의 얼굴을 한 악마’를 예상했지만, 지극히 평범한 한 개인의 모습에 많은 사람이 놀랐다.

한 걸음 더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일반적 정의〉

· 법을 준수함으로써 정치 공동체의 행복을 창출하고 지키는 것이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미덕 또는 탁월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특수적 정의〉

- 시정적 정의 :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그만큼 보상을 하며, 이익을 주었으면 그만큼 되돌려 받는 것이다.
- 분배적 정의 : 권력, 지위, 명예, 재화 등을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여름

윤리적 관점에서 설명하기

정의는 완전한 덕이며, 덕 가운데 가장 큰 덕이다.

정의란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도록 하고, 옳게 행동하게 하며, 옳은 것을 원하게 하는 성품이다. 정의롭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 정의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다. 법을 지키지 않거나, 욕심이 많고, 불공정한 사람은 모두 정의롭지 못하다.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는 행위는 정의롭다. 정의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덕이며, 모든 덕 가운데 가장 크다. 정의의 영역에는 모든 덕이 다 들어 있다. 정의의 덕이 완전한 까닭은 그 덕을 가진 사람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웃을 위해서도 그것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

Q 뒷글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가장 큰 덕으로 여긴 이유를 찾아보자.

분배 정의의 의미

‘각자에게 자신의 정당한 몫’을 돌려주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정당한 몫과 그 몫을 돌려주는 정당한 방법, 즉 공정하게 분배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분배의 다양한 기준 첫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는 분배 방식이 있다. 이는 5
많이 공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동일한 몫을 분배받는다라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이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사회적 재화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와 보상을 주는 방식이 있다. 이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한계 10
가 있다. 마지막으로 업적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이 있다. 이는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약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처럼 각각의 분배 기준은 그것이 가진 한계로 정의로운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분배의 문제는 사회 구조 및 체제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 사회는 필요에 초점을 맞추 15
면서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고, 자본주의 사회는 능력과 업적에 초점을 두면서 자유의 가치를 강조한다.

마르크스의 분배 정의 마르크스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할 것을 주장하였다. 개인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분배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시하는 능력에 20
따른 분배는 양극화를 초래하여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마르크스의 이러한 관점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준다.

한 걸음 더

» 공리주의의 분배 정의

공리주의의 분배 정의는 대체로 재산권의 보장에 따른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와 관련이 깊다. 벤담에 따르면 정의로운 분배는 사회 전체가 얻게 될 이익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는 정의의 문제에서 중요하다.



롤스의 분배 정의 *롤스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것이라면 정의롭다고 보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고 여겼다.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최초의 가상적 상황인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타인의 이해관계에 무관심하며,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한다. 이들은 공평한 합의를 위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 재능, 가치관 등을 모르고 있다고 가정한다. 롤스는 이렇게 *무지의 베일을 쓴 상황에서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의의 두 원칙에 합의할 것이라고 보았다.



- 제1원칙 :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에서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평등한 자유의 원칙).
- 제2원칙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며,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지위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정의의 두 원칙에는 우선성의 규칙이 있다. 제1원칙은 ‘자유’의 우선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제2원칙보다 선행하며,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의 성격을 지니며 효율성과 복지에 대하여 ‘정의의 우선성’을 추구한다.

노직의 분배 정의 *노직은 자유 지상주의적 입장에서 정의를 탐구하였으며, 재화를 소유하게 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만일 어떤 개인이 정당하게 노동하여 최초로 재화를 취득하였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재화를 양도받았다면 그의 소유는 정당한 것이다. 다만 재화를 획득하고 양도받는 과정에서 부정의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처럼 노직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정의라고 보았으며, 국가에 의한 재분배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롤스(Rawls, J., 1921~2002) 미국의 학자로, 정의의 원칙과 이 원칙을 끌어내는 방법적 측면을 모두 중시하였다. 오늘날 정의론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는 사상가이다.

*무지의 베일 이해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인적 정보를 마치 베일을 씌우는 것처럼 없애는 것을 표현한다.

*기본적 자유 정치적 자유, 언론과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유, 자의적인 구속과 체포로부터의 자유 등이 있다.

*노직(Nozick, R., 1938~2002) 미국의 학자로, 자유 지상주의적 입장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았다.

함께 나누는 가을

공정한 사회 건설 방안 제안하기

소득 재분배에 관한 롤스와 노직의 입장



롤스

최대 수혜자 갑은 최소 수혜자 을과 도덕적 비대칭성의 관계에 있다. 즉 갑을 위한 을의 희생과 을을 위한 갑의 희생은 동등한 것이 아니다. 재능, 지위와 같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요소들의 작용으로 최대 수혜자가 된 갑은 최소 수혜자인 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일정한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Q 소득 재분배에 대하여 누구의 입장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소득 재분배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같다. N 시간 분의 소득을 세금으로 취하는 것은, 그 노동자로부터 N 시간을 빼앗는 것과 같다. 이는 마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해 N 시간 일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노직

소수자 우대 정책과 역차별

*유리 천장 능력이 충분함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위직 승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차별과 소수자 우대 정책 물질적 재화나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차별이란 정당하지 못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불리하게 또는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차별이나 *유리 천장과 같은 성차별, 장애인에 대한 고용 차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각종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 정의에 입각한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소수자 우대 정책이 도입되었다.

소수자 우대 정책은 차별을 받아온 사회적 약자에게 대학 입학이나 취업 등에서 가산점을 주거나 혜택을 주는 사회 정책이다.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고 공정한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이나 고용에서 주로 시행된다. 최근에는 아동, 노인, 이주민 등 다양한 범주의 사회적 약자가 성공적인 삶을 누릴 가능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강구되고 있다.

▼ 미국 텍사스에 있는 한 대학원에 입학 원서를 낸 세릴 홈우드(Seiril Homewood)는 성적이 우수했지만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학교 정책으로 인해 입학 자격을 얻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백인이어서 입학이 거절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 샌델(Sandel, M.), 『정의란 무엇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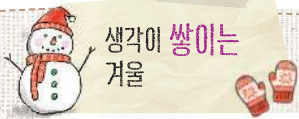
역차별과 소수자 우대 정책의 윤리적 쟁점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소수자 우대 정책이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부당한 차별을 받는 대상을 우대하는 제도나 정책이 도리어 상대방을 차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수자 우대 정책이 윤리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소수자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실제 차별을 받았던 것인지, 혜택을 받는 사람의 자존감이 손상하지는 않는지, 노력과 성취에 따른 업적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등이 쟁점이 된다. 따라서 역차별의 문제를 균형감 있게 살펴보고,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소수자 우대 정책 찬성의 근거

- 과거에 차별을 받았던 소수 집단이나 이에 영향을 받은 후손에게 차별을 보상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교정할 수 있다.
- 소수자 우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다양성과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다.
-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을 먼저 배려함으로써 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소수자 우대 정책 반대의 근거

- 보상받는 자는 과거에 차별을 받았던 당사자가 아닐 수 있고, 현재 보상하는 사람들도 과거 차별을 가했던 당사자가 아닐 수 있다.
- 소수자 우대 정책은 사회적 약자의 자존감을 손상할 수 있고, 역차별로 인한 다수 집단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 어떤 결과가 개인의 노력보다 환경의 좋고 나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다원적 사회에서 더 좋은 시민을 길러 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

우리의 학교는 다양한 학생으로 구성된 교실의 모습을 지향해 왔다. 학생들이 지리적 배경, 경제적 계층, 종교, 문화, 인종 등이 다양한 급우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게 된다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더 좋은 자질을 갖추 수 있으며, 다원적 민주주의에서 좋은 시민으로서 행동하기 위해 더 잘 준비될 수 있다. 학교가 인종, 계급, 직업, 지위에 의해서 한 국가를 분리하는 것은 정의와 조화 모두의 적이라고 생각한다.

소수자 우대 정책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은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 분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어떤 학생도 과거의 성취나 능력, 타고난 덕으로 인해 대학 입학 자격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각각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선택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학교에서 선택한 다양한 목표들에 이바지할 가능성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한다.

— *드워킨, 『자유주의적 평등』—

*드워킨(Dworkin, R. M., 1931~2013) 미국의 법철학자로, 대표적 저서로 『법과 권리』가 있다.

쉬운 해설 드워킨은 소수자 우대 정책이 다원적 민주주의를 고양하고 좋은 시민을 길러 낼 수 있다고 보았다. 대학 입학 자격은 각 대학의 목표에 학생들이 얼마나 잘 이바지할 수 있는가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며, 소수자 우대 정책은 우리 사회를 인종, 계급, 지위로 분리하려는 시도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해 준다고 하였다.

